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성신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어 왔다. 바로 청년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춘다는 노출가설과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는 선택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학교 4년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차 조사와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시점에서 모두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GHQ를 측정하였다. 1차 조사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전국 20개 대학에서 총 2,74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최종 1,301명의 자료를 얻었고, 3차 조사에서는 최종 1,387명의 자료를 얻었다. 이 중 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취업여부가 확인된 최종 89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본 연구의 주요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2차 시점과 3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의해서 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미취업 상태 '미취업-미취업' 집단, 2차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이었으나 3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인 '미취업-취업' 집단 그리고 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취업 상태인 '취업-취업'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과 성별에 따라서 1차 시점의 GHQ 우울·불안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집단에 따라 1차 시점의 GHQ 우울·불안이 다르지 않아서 선택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미취업-미취업 집단보다 미취업-취업 및 취업-취업 집단에서 1차 시점의 GHQ 우울·불안이 더 낮아서 선택가설이 지지되었다. 세 시점별로 GHQ 총점의 변화를 보면, 미취업-미취업 집단은 1차 시점과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에서 GHQ 총점이 더 높아졌다.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에 비해서 3차 시점에서 GHQ 총점이 더 낮았으며, 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에 비해서 2차 시점에서 GHQ 총점이 낮지만, 3차 시점에서는 2차 시점보다 GHQ 총점이 더 높아졌다. 1차 시점의 GHQ 총점을 공변인으로 하고 세 집단이 3차 시점의 GHQ 총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도 미취업-미취업 집단은 미취업-취업 집단 및 취업-취업 집단보다 GHQ 총점이 더 높았다. 이러한 시점별 변화는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청년실업, 정신건강, 종단연구, 취업, GHQ, 선택가설, 노출가설, 인과가설.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1HS1512).

† 교신저자 : 장재윤,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E-mail : jaeyoonc@sungshin.ac.kr

본 연구는 취업여부에 따라서 대졸자들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서 취업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추는지 아니면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졸업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시점에서 측정한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 시점에서 측정한 정신건강 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제거하여도 여전히 취업여부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 측정한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서는 최근 4주간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실업'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 수준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정서나 행동문제와 같이 개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Brenner(1984)는 거시경제적 침체와 집단적인 사회병리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그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경제합동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보고에 의하면, 1973-74년의 경제 불황의 결과로 자살률이 1%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사망, 심혈관 질환, 알콜 중독, 사망, 살

인, 정신병원 입원 등의 빈도가 극적으로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실업률 증가는 그 사회의 범죄율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Allan & Steffensmeier, 1989).

그리고 실업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다룬 연구들은 개인수준에서 실업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경우도 많았는데, 실업은 정서, 자존감 혹은 알콜소비와 같은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에게서 불안감, 우울, 짜증, 공격성, 분노, 자아 존중감의 저하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Cobb & Kasl, 1977; Hammarstrom & Janlert, 1997).

예를 들어, Cobb와 Kasl(1977)은 공장 폐쇄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실직된 작업자들과 그 부인들의 표본에서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준 증가, 요산 수준 상승, 위궤양 및 관절염 발생 증가, 불안 상승, 그리고 심리적 고통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실업자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Fryer & Payne, 1986). 또한 Ettner(1995)는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업이 알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난 2주간 소비한 알콜량이 더 많았다.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고용상태인 사람들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쁘다는 점을 보인 연구들도 있다. 실업이 초래하는 문제를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종속치로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Creed와 Reynolds(2001)의 연구에서는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져본 적 없는 실직자들(집단 1), 간헐적으로 시간제 일

을 해본 적 있는 실직자들(집단 2), 현재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실직자들(집단 3) 및 정규직을 가진 고용자들(집단 4)로 고용상태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그리고 고용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집단 3과 집단 4보다 집단 1에서 GHQ 점수가 더 높아서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또한 집단 4에 비해서 집단 2에서 GHQ 점수가 더 높아서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이 외에도 실업이 GHQ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Bolton & Oatley, 1987; Dew, Bromet, & Penkower, 1992; Hammer, 1993; Layton, 1986; Schaufeli & Van Yperen, 1992).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Murphy와 Athanasou(1999)의 연구에서도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54로 유의하였고 그 값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문제들

실업 중에서도 최근 청년실업(2002년 8월 시점에서 7.5%)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국외, 특히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성인의 실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청년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이훈구, 김인경 및 박윤창(2000)의 연구에서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은 취업한 집

단에 비해 신체화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등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년실업자들은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Prause와 Dooley(1997)의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더 낮았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도 문제가 되는 행동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알콜사용(Alma, 1991)이나 약물남용(Atkinson, Montoya, Whitsett, Bell, & Nagy, 2003; Kandel, 1980)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있다. Hammarstrom, Janlertt 및 Winefield(2002)의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낮은 집단(스웨덴)과 높은 집단(호주)으로 나누어서 이 두 집단이 5년 후 알콜, 흡연 및 약물사용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알콜 소비량과 약물사용은 실업률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 외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실업상태에 있는 성인들과 다른 특징도 지니고 있다. 실업에 있어서 성인들에 비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역할에 대한 압박은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발달과정에서 볼 때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학생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는데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이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Hannan, O'Riain, & Whelan, 1997, 308쪽). 이 외에도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독립적 직업이나 고용상태를 이루지 못하여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할 수 있고(Gurney, 1980), 유능성이나 자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Warr, 1987), 보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여 전체 사회로부

터 소외되고 분리될 수 있다(Hannan, O'Riain, & Whelan, 1997).

이상에서 요약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년실업은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심리적 고통을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서도 종속치로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측정한 경우가 많았는데(Hannan, O'Riain, & Whelan, 1997; Hoare & Machin, 2004; Patterson, 1997; Schaufeli, 1997;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Goldney, 1993), 대체로 청년실업자들은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들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반영하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보면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이 관련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실업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결과들만으로는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본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어 왔는데, 하나는 청년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춘다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는 가설이다. 전자를 노출인과 가설이라고 하고 후자를 선택가설이라고 한다(Winefield, 1997, 238쪽).

그러나 한 시점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게 되면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신건강에 청년실업이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횡단연구를 통해서만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경쟁가설을 검증하기 불가능하며, 종단연구를 통해서만 이 두 가설 중 어떤 가설이 지지되는지 혹은 두 가설이 모두 부분적으로 지지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본 종단연구들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먼저 Hannan, O'Riain 및 Whelan(1997)은 아일랜드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간격(1982년-1987년)으로 고용상태와 GHQ로 측정한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고용상태의 청년들보다 실업상태의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982년 당시 정신건강 수준의 효과를 통제하여도 실업상태의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더 나쁘다는 점은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노출가설과 선택가설 중에서 무엇을 지지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Prause와 Dooley(1997)는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7년 간격(1980년-1987년)으로 고용상태와 자존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1980년에 측정한 초기 자존감 수준을 통제하여도 고용상태는 7년 후 자존감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자존감 이외에 성, 사회경제적 수준, 인종, 적성 및 교육수준을 통제하여도 완전고용상태인 사람들보다 불완전고용상태인 사람들의 자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는 초기 여러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고용상태가 이후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명확한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

용상태인 사람들과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를 실업상태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Patterson(1997)은 영국에서 16-17세의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업이 정신건강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9개월의 간격을 둔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1차 시점과 2차 시점에서 모두 실업상태인 집단(실업집단)과 1차 시점에서는 실업상태였지만 2차 시점에서는 고용상태인 집단(고용집단)의 2차 시점에서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실업집단에서는 1차 시점과 2차 시점에서 GHQ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정신건강 수준이 나빠지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집단에서는 1차 시점에서는 GHQ 점수가 높았지만 2차 시점에서는 유의한 정도로 더 낮아졌다. 다만 이 두 집단의 1차 시점에서의 GHQ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용집단에서 실업집단보다 1차 시점에서 GHQ 점수가 더 낮아서 정신건강 수준이 더 좋았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1차 시점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했으므로 선택가설을 지지하며, 두 시점간 GHQ 점수의 변화가 2차 시점에서 고용된 집단에서만 나타났으므로 노출가설도 지지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단설계를 통해서 고등학교 당시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해도 취업여부는 이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Bachman, O'Malley, & Johnston, 1978; Gurney, 1980; Banks & Jackson, 1982; Patton & Noller, 1984;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Schaufeli(1997)는 네덜란드에서 대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984년과 1986의 2년 간격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길어

질수록 GHQ 점수가 높아져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점을 보였다. 반면에 학생들은 GHQ에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는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노출가설이 지지된다고 해석하였다.

Hammarstrom과 Janlert(1997)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적인 우울증상을 주종속치로 하여 스웨덴에서 5년을 간격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초기 우울증상을 통제하여도 실업상태는 이후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더 높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업집단과 고용집단의 초기 우울증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선택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초기 우울증상을 통제하여도 이후 우울증상에서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노출가설도 지지되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종속치가 신경증적인 우울증상이었으므로 이를 전반적 정신건강 수준으로까지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런데 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서 실업자들은 본래 자존감이 낮거나 부적정서가 더 높은 점을 보여준 연구(Hoare & Machin, 2004)가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종단연구 중에서도 본래 정신건강 수준이 낮거나(Patterson, 1997) 혹은 우울문제가 높은 점(Hammarstrom & Janlert, 1997)을 보여준 것들이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정신건강 수준을 두 번 이상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전후로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초기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이후 정신건강 수준을 다시 측정하여 초기 정신건강 수준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집단과 고용상태에 있는 집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거나 초기 정신건강 수준과 이후 정신

건강 수준간 상관이 유의한 경우에는 초기 정신 건강 수준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 이후 정신건강 수준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여야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을 적절히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시점에 걸쳐서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GHQ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실업상태에서 고용상태로 변화한 집단,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인 집단 및 지속적으로 고용상태인 집단의 세 집단을 구성하여 세 시점에 걸쳐서 측정한 GHQ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서 초기 GHQ 점수를 통제하여도 여전히 3차 시점에서의 GHQ에서 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패널조사 방식의 종단연구를 계획하였으므로 1차 조사 시기에 전국의 졸업 예정자들을 대표하는 충분히 많은 수를 표집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는 2003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이면서 구직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 전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5월로 정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 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각 지역별 표본 수 내에서 각 학교별로 표집인원을 배분한 후 계열별 및 남녀별 비율에 따라 대상자들을 무선으로 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해 20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별로 96

명~144명씩 표집하여 총 2,74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집 과정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위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표본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체능계열이나 의학계열(의대 및 약대)과 같이 특수한 분야로 사회진출을 할 가능성이 큰 전공자들, 취업의사가 없거나 이미 확정된 사람들, 군입대 예정자, 진학예정자, 고시준비자, 가업승계자, 기타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최종 2,542명의 응답이 1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1차 조사에서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5명의 조사원들이 개별 조사 대상자와 1:1 방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5월 중순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에서는 질문지를 조사원이 직접 해 보게 해 질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연고(특정 학과, 동아리, 특정 모임이나 기관, 고등학교 선배 등)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금지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응답자 모집도 금지하였다. 조사원 한 명이 30명의 조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해 질문지를 실시하게 하였다. 조사가 신뢰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연구진이 10%의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 조기 취업되는 졸업 예정자들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인 11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한 달 전에 모든 1차 응답자들에게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사례할 것임을 고지해 설문 참여동기를 강화하였다.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된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였고 2차 설문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차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한 후 2주까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하여 응답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01명의 응답이 2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조사 때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 조사는 1차 조사 당시에 졸업예정자들이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에 적응하는 초기를 경험하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2004년 5월에 실시되었다.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한 달 전에 모든 1차 응답자들에게 사전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 응답률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품권 1만원권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어서 참여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머지 실시 방법은 2차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84명의 응답이 3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질문지 구성

1차 조사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변인과 정신건강(신선인, 2001에서 추출)을 측정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취업여부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취업여부 및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도구

일반정신건강 척도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측정치는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이다(Murphy & Athanasou, 1999, 90쪽에서 인용). GHQ는 Goldberg(1972)가 개발한 척도인데, 현재를 포함해 지난 2-3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응답자의 평소 심리상태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방식을 사용한다. GHQ의 원문은 본래 우울증, 불안증, 사회적 부적응, 신체화 증상, 불면증 등을 측정하는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30문항, 28문항, 20문항 등으로 간소화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 중 신현균과 장재윤(2003)이 사용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2문항은 우울·불안 요인 6문항, 사회부적응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이 12문항이 2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893명의 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의 값이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직각회전하였다. 그 결과에서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구조가 타당화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문항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GHQ는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응답항목은 신선인(2001)의 방식을 따랐으며 0점은 '매우 아니다', 1점은 '아니다', 2점은 '그렇다', 3점은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다. 우울·불안의 경우에 본 연구의 최종표집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조사에서 얻은 신뢰도는 순서대로 $\alpha = .76$, $\alpha = .80$, $\alpha = .76$ 이었다. 사회부

적응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a = .81$, $a = .82$, $a = .82$ 이었으며, 전체 12문항에서는 순서대로 $a = .82$, $a = .85$, $a = .83$ 이었다. 응답자별로 우울·불안 6문항, 사회부적응 6문항, 전체 12문항의 총합을 구하여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변인

응답자들은 인구통계변인으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응답하였다. 또한 생년월일을 적어 넣도록 하여서 연령을 산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들의 특성

결측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1차 조사에서는 2,542명의 자료가 얻어졌지만, 3차 조사에서는 1,384명의 자료가 얻어졌다. 따라서 1차 조사에 비해서 3차 조사에서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3차 조사까지 추적되지 못한 사람들이 3차 조사까지 참여한 사람들과 본래 기저선에서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차 조사 2,542명 자료에서 1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에 군대에 입대했거나 유학이나 연수를 시작한 사람들 14명을 다시 제외하니 2,528명의 자료가 남았다. 이 자료를 3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1,384명(이후부터 '3차 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1,144명(이후부터 3차 미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1차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부터 보면, 3차 미응답 집단에서 남성이 647명(56.9%)이고 여성이 491명(43.1%)이었으며, 3차 응답 집단에서는 남성이 777명(56.5%)이고 여성이 598명(43.5%)이었다. 카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chi^2 = .030$, n.s.). 이외에 연령(3차 미응답 집단과 3차 응답 집단

순서대로, $M = 25.34$, $M = 25.26$, $t = .26$, n.s.)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의 구성

1,384명의 자료를 2차 시점과 3차 시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3차 시점에서 대학원이나 다른 대학에 편입하였거나 여전히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 483명은 제외시켰다. 나머지 901명 중에서 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미취업 상태인 386명의 사람들을 '미취업-미취업'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이었으나 3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인 367명의 사람들을 '미취업-취업'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취업 상태인 140명의 사람들을 '취업-취업'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였으나 3차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도 8명 있었으나 이들은 표본 수가 너무 작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89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구성부터 보면, 남성이 467명(52.3%)이고, 여성이 420명(47.0%)이며, 6명(0.7%)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은 3차 조사 당시에 21세부터 32세까지로 21세부터 27세까지가 95%를 차지하였다.

2차 시점과 3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의해서 나누는 세 집단이 성별과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미취업-미취업 집단($M = 24.44$)과 미취업-취업 집단($M = 24.54$) 및 취업-취업 집단($M = 24.08$)에서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세 집단에서 남녀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다($\chi^2 = 15.54$, $p < .001$). 미취업-미취업 집단(남, 46.1%, 여, 53.9%)과 미취업-취업 집단(남, 54.9%, 여, 45.1%)에서는 남녀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었

지만, 취업-취업 집단(남, 64.7%, 여, 35.3%)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세 집단에서 남녀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으므로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삼아서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

1차 조사에 응답하였으나 3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집단과 3차 조사에서도 응답한 집단이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 구성된 세 집단이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성별이 세 시점별로 GHQ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삼원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 시점의 GHQ 점수를 통제하여도 여전히 3차 시점에서 GHQ 점수가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1차 시점의 GHQ 점수를 공변인으로,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3차 시점의 GHQ 점수를 종속치로 한 이원공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1차 시점에서 집단과 성별에 따른 GHQ 점수

미취업-미취업 집단(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미취업 상태), 미취업-취업 집단(2차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이었으나 3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 및 취업-취업 집단(2차 시점과 3차 시점에서 모두 취업 상태) 별로 1차 시점에서 측정한

GHQ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세 집단의 남녀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으므로 세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집단의 주효과는 GHQ_우울·불안($F_{(2,886)} = .25$, n.s.), GHQ_부적응($F_{(2,878)} = 3.06$, n.s.) 및 GHQ_총점($F_{(2,873)} = .91$, n.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세 집단이 1차 시점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성별이 GHQ_우울·불안과 GHQ_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GHQ_우울·불안부터 보면, 성별의 주효과($F_{(1,886)} = 19.27$, $p < .001$)와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_{(2,886)} = 4.27$, $p < .05$)가 유의했다. 주효과부터 보면, 여성($M = 8.70$)이 남성($M = 7.68$)보다 1차 시점에서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또한 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여성($M = 8.44$)과 남성($M = 8.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_{(1,886)} = 1.17$, n.s.). 반면에 취업-취업 집단에서 남성($M = 7.64$)이 여성($M = 8.73$)보다 GHQ_우울·불안이 더 낮았고($F_{(1,886)} = 4.12$, $p < .05$),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도 남성($M = 7.29$)이 여성($M = 8.93$)보다 GHQ_우울·불안이 더 낮았다($F_{(1,886)} = 26.44$, $p < .001$).

GHQ_총점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즉 성별의 주효과($F_{(1,878)} = 14.69$, $p < .001$)와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_{(2,878)} = 4.49$, $p < .05$)가 유의했다. 여성($M = 16.42$)이 남성($M = 15.23$)보다 1차 시점에서 GHQ_총점이 더 높았다. 또한 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여성($M = 16.29$)과 남성($M = 15.8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_{(1,878)} = 1.05$, n.s.), 취업-취업 집단에서도 여성($M = 16.02$)과 남성($M = 15.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_{(1,878)} = 1.76$, n.s.). 반면에 미취업-취업

표 1. 세 시점별 세 집단의 GHQ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시점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Mean	(SD)	Mean	(SD)	Mean	(SD)
GHQ 우울·불안	미취업-미취업	남자	8.10 ^a	(3.21)	7.99 ^a	(2.98)	8.72 ^b	(3.46)
		여자	8.44 ^a	(3.06)	8.92 ^a	(3.48)	9.39 ^b	(3.50)
		소계	8.28 ^a	(3.13)	8.51 ^a	(3.29)	9.08 ^b	(3.49)
	미취업-취업	남자	7.29 ^{ab}	(2.88)	7.62 ^a	(3.15)	6.98 ^b	(3.03)
		여자	8.93	(2.85)	9.39	(2.76)	8.72	(2.95)
		소계	8.03 ^a	(2.98)	8.49 ^b	(3.09)	7.76 ^a	(3.11)
	취업-취업	남자	7.64	(2.99)	7.38	(2.57)	7.64	(3.11)
		여자	8.73 ^{ab}	(3.46)	8.24 ^a	(2.60)	9.33 ^b	(3.79)
		소계	8.03 ^{ab}	(3.20)	7.68 ^a	(2.60)	8.24 ^b	(3.45)
	합계		8.15	(3.08)	8.36	(3.11)	8.42	(3.38)
GHQ 부적응	미취업-미취업	남자	7.78 ^a	(1.90)	7.13 ^b	(2.69)	7.41 ^{ab}	(2.82)
		여자	7.83	(1.70)	7.70	(2.61)	8.04	(2.81)
		소계	7.81 ^a	(1.79)	7.45 ^b	(2.66)	7.75 ^{ab}	(2.83)
	미취업-취업	남자	7.45 ^a	(1.89)	6.36 ^b	(2.54)	6.37 ^b	(2.44)
		여자	8.00 ^a	(1.61)	7.13 ^b	(2.47)	7.29 ^b	(2.21)
		소계	7.70 ^a	(1.79)	6.74 ^b	(2.53)	6.79 ^b	(2.38)
	취업-취업	남자	7.43 ^a	(1.73)	5.52 ^b	(2.38)	6.51 ^c	(2.44)
		여자	7.29 ^a	(1.74)	6.18 ^b	(2.24)	7.00 ^{ab}	(2.72)
		소계	7.38 ^a	(1.73)	5.76 ^b	(2.35)	6.68 ^c	(2.54)
	합계		7.70	(1.78)	6.87	(2.63)	7.20	(2.65)
GHQ 총점	미취업-미취업	남자	15.87 ^{ab}	(4.38)	15.13 ^a	(4.91)	16.13 ^b	(5.45)
		여자	16.29 ^a	(3.96)	16.63 ^a	(5.18)	17.43 ^b	(5.45)
		소계	16.10 ^a	(4.16)	15.96 ^a	(5.11)	16.83 ^b	(5.48)
	미취업-취업	남자	14.74 ^a	(3.99)	13.99 ^b	(4.98)	13.35 ^c	(4.66)
		여자	16.93 ^a	(3.61)	16.53 ^{ab}	(4.29)	16.01 ^b	(4.41)
		소계	15.73 ^a	(3.97)	15.23 ^b	(4.82)	14.55 ^c	(4.73)
	취업-취업	남자	15.07 ^a	(3.95)	12.90 ^b	(4.07)	14.16 ^c	(4.78)
		여자	16.02 ^a	(4.67)	14.43 ^b	(4.34)	16.33 ^a	(5.65)
		소계	15.41 ^a	(4.22)	13.44 ^b	(4.22)	14.92 ^a	(5.19)
	합계		15.85	(4.10)	15.22	(4.93)	15.61	(5.24)

주 1. 한 행 내에서 서로 다른 위첨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평균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

2. GHQ 우울·불안의 값은 0에서 18점, GHQ 부적응은 0에서 18점, 그리고 GHQ 총점은 0에서 36점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음. 평균값이 클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의미함.

집단에서는 남성 ($M = 14.74$)이 여성($M = 16.93$)보다 1차 시점에서 GHQ_총점이 더 낮았다($F_{(1,878)} = 27.06, p < .001$).

따라서 1차 시점에서 세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차 시점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GHQ_우울·불안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_{(2,886)} = 1.21, n.s.$), GHQ_총점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_{(2,878)} = 1.56, n.s.$).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 GHQ_우울·불안($F_{(2,886)} = 3.43, n.s.$)과 GHQ_총점($F_{(2,878)} = 3.68, p < .05$)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1차 시점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조건별로 달라진 결과는 미취업 취업 집단의 남성들($M = 7.29$)과 취업 취업 집단의 남성들($M = 7.64$)의 GHQ_우울·불안 수준이 미취업-미취업 집단의 남성들($M = 8.10$)보다 더 낮은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F_{(1,878)} = 3.92, p < .05, F_{(1,878)} = 3.45, p < .05$).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래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이후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선택가설이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본래 정신건강, 특히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택가설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시점에서 집단과 성별에 따른 GHQ 점수의 변화

본 연구에서 주종속치로 다루고 있는 GHQ 점수가 6개월의 간격으로 이루어진 세 시점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시점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삼원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평균값들도 표 1¹⁾에 제시되어 있다.

GHQ_우울·불안

GHQ_우울·불안부터 보면,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F_{(2,1418)} = 7.47, p < .01$).

- 1) 2차 시점 및 3차 시점에서 집단과 성별에 따라 GHQ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2차 시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HQ_우울·불안에서는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는데($F_{(2,712)} = 23.37, p < .001$), 남성($M=7.66$)보다 여성($M=8.55$)이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GHQ_부적응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_{(2,712)} = 10.49, p < .001$)와 집단의 주효과($F_{(2,712)} = 17.56,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M=6.34$)보다 여성($M=7.03$)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고, 취업-취업집단($M=5.76$)보다 미취업-취업 집단($M=6.74$)이, 미취업-취업 집단보다 미취업-미취업 집단($M=7.45$)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다. GHQ_총점에서도 성별의 주효과($F_{(2,712)} = 23.18, p < .001$)와 집단의 주효과($F_{(2,712)} = 9.69,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M=14.01$)보다 여성($M=15.86$)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고, 취업-취업집단($M=13.44$)보다 미취업-취업 집단($M=15.23$) 및 미취업-미취업 집단($M=15.96$)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3차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HQ_우울·불안에서 성별의 주효과($F_{(2,881)} = 29.47, p < .001$)와 집단의 주효과($F_{(2,881)} = 12.59,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M=7.78$)보다 여성($M=9.14$)이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고, 취업-취업집단($M=8.24$)과 미취업-취업 집단($M=7.76$)보다 미취업-미취업 집단($M=9.08$)이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GHQ_부적응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_{(2,881)} = 11.61, p < .001$)와 집단의 주효과($F_{(2,881)} = 13.41,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M=6.76$)보다 여성($M=7.44$)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고, 취업-취업집단($M=7.20$)과 미취업-취업 집단($M=6.79$)보다 미취업-미취업 집단($M=7.75$)이 GHQ_부적응이 더 높았다. GHQ_총점에서도 성별의 주효과($F_{(2,881)} = 27.77, p < .001$)와 집단의 주효과($F_{(2,881)} = 16.64, p < .001$)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M=14.54$)보다 여성($M=16.59$)이 GHQ_총점이 더 높았고, 취업-취업집단($M=15.61$)과 미취업-취업 집단($M=14.55$)보다 미취업-미취업 집단($M=16.83$)이 GHQ_총점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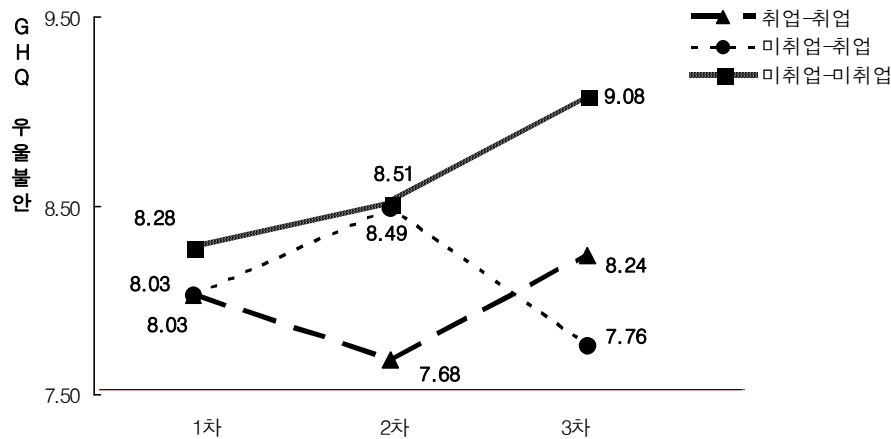


그림 1. 시점별 세 집단의 GHQ_우울·불안 점수의 변화

구체적으로 미취업 미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 = 8.28$)과 2차 시점($M = 8.51$)간 GHQ_우울·불안은 차이가 없지만($F_{(1,709)} = 2.76$, n.s.), 3차 시점($M = 9.08$)에서는 1차 시점 및 2차 시점보다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아졌다($F_{(1,709)} = 9.04$, $p < .01$, $F_{(1,709)} = 21.13$, $p < .001$).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을 보면,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8.03$)보다 2차 시점($M = 8.49$)에서 GHQ_우울·불안이 높아졌다가($F_{(1,709)} = 5.59$, $p < .01$)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M = 7.76$)에서 GHQ_우울·불안은 다시 낮아졌다($F_{(1,709)} = 11.27$, $p < .001$). 그리고 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8.03$)과 2차 시점($M = 7.68$)은 차이가 없었지만($F_{(1,709)} = 1.55$, n.s.),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M = 8.24$)에서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아졌다($F_{(1,709)} = 3.91$, $p < .05$).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_우울·불안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외에 성별의 주효과($F_{(1,709)} = 43.56$, $p < .001$)가 유의했다. 즉 여성($M = 8.90$)이 남성($M = 7.71$)보다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GHQ_부적응

GHQ_부적응을 보면, 시점의 주효과($F_{(2,1420)} = 44.14$, $p < .001$)가 유의했는데, 1차 시점($M = 7.70$)보다 2차 시점($M = 6.87$)에서 GHQ_부적응이 낮아져서 적응 측면에서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F_{(2,719)} = 13.32$, $p < .01$). 그러나 이는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F_{(2,1414)} = 6.30$, $p < .05$) 및 시점과 성별의 이원상호작용($F_{(2,1414)} = 3.91$, $p < .05$)이 유의하여 그 해석에 제한이 있다.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부터 보면, 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7.38$)보다 2차 시점($M = 7.45$)에서 GHQ_부적응이 낮아졌다가($F_{(1,719)} = 32.81$, $p < .001$) 3차 시점($M = 6.68$)에서는 2차 시점보다 GHQ_부적응이 다시 높아졌다($F_{(1,719)} = 10.52$, $p < .01$). 그러나 3차 시점의 GHQ_부적응은 1차 시점의 GHQ_부적응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F_{(1,719)} = 6.17$, $p < .05$).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7.70$)보다 2차 시점($M = 6.74$)에서 GHQ_부적응이 낮아졌다가($F_{(1,719)} = 24.64$, $p < .001$) 3차 시점($M = 6.79$)에서는 2차 시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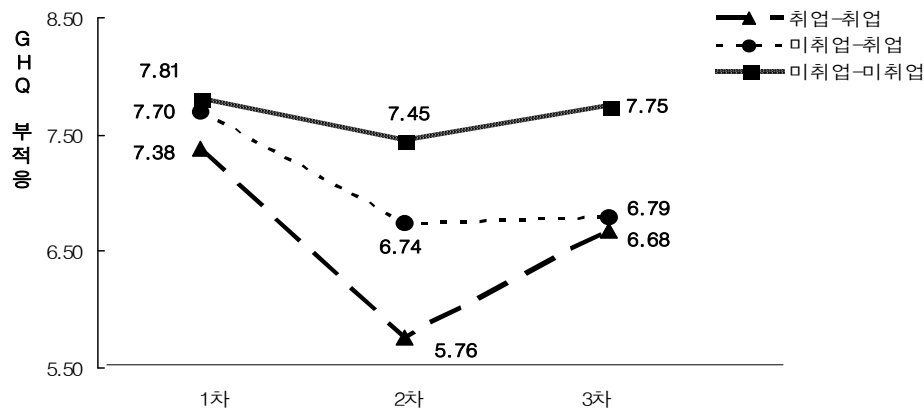


그림 2. 시점별 세 집단의 GHQ_부적응 점수의 변화

유지되었다. 반면에 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7.81$)보다 2차 시점($M = 7.45$)에서 GHQ_부적응이 높았다($F_{(1,719)} = 3.49, p < .05$).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_부적응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시점과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1차 시점($M = 7.55$)보다 2차 시점($M = 6.34$)에서 GHQ_부적응이 낮아졌다($F_{(1,707)} = 41.64, p < .01$) 다시 3차 시점($M = 6.77$)에서 높아졌는데($F_{(1,707)} = 4.29, p < .05$), 이는 1차 시점의 GHQ_부적응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었다($F_{(1,707)} = 25.54, p < .01$).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1차 시점($M = 7.71$)보다 2차 시점($M = 7.01$)에서 GHQ_부적응이 낮아졌고($F_{(1,707)} = 10.60, p < .01$) 3차 시점($M = 7.44$)에서도 1차 시점보다 낮게 유지되었다($F_{(1,707)} = 3.60, p < .05$).

GHQ 총점

GHQ 총점을 보면, 시점의 주효과($F_{(2,1414)} = 10.41, p < .001$)가 유의했는데, 1차 시점($M = 15.85$)보다 2차 시점($M = 15.22$)에서 GHQ 총점

이 낮아져서 정신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러나 이는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F_{(2,1414)} = 8.76, p < .001$) 그 해석에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16.10$)과 2차 시점($M = 15.96$)간 GHQ 총점은 차이가 없지만($F_{(1,707)} = 0.08, n.s.$), 3차 시점($M = 16.83$)에서는 1차 시점 및 2차 시점보다 GHQ 총점이 더 높아져서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낮아졌다($F_{(1,707)} = 18.99, p < .001, F_{(1,707)} = 17.90, p < .001$).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M = 15.73$)보다 2차 시점($M = 15.23$)에서 GHQ 총점이 낮아지고($F_{(1,707)} = 6.76, p < .05$),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M = 14.55$)에서 GHQ 총점이 낮아졌다($F_{(1,707)} = 6.57, p < .05$). 그리고 취업·취업 집단에서도 1차 시점($M = 15.41$)보다 2차 시점($M = 13.44$)에서 GHQ 총점이 낮아졌지만($F_{(1,709)} = 47.87, p < .001$),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M = 14.92$)에서 GHQ 총점이 다시 높아져서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낮아졌다($F_{(1,709)} = 27.26, p < .001$).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_우울·불안의 변화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 외에 성별의 주효과($F_{(1,709)} = 36.16, p < .001$)가 유의했다. 즉 여성($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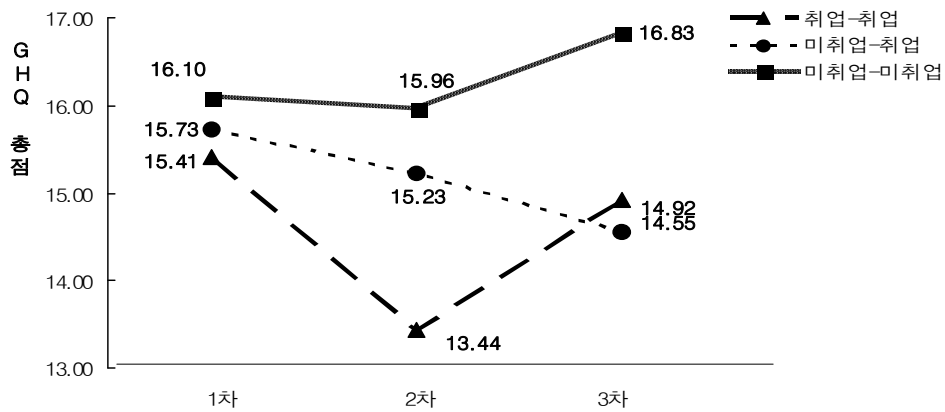


그림 3. 시점별 세 집단의 GHQ 총점의 변화

16.28)이 남성($M = 14.59$)보다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1차 시점의 GHQ를 통제한 3차 시점의 GHQ점수

세 시점별로 GHQ 점수의 변화 이외에 대학교 4학년으로서 졸업하기 전 1차 시점의 GHQ 점수를 통제하여도 여전히 3차 시점에서 GHQ 점수

가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1차 시점의 GHQ 점수를 공변인으로, 성별 및 집단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3차 시점의 GHQ 점수를 종속치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GHQ_우울·불안, GHQ_부적응, GHQ_총점에서 모두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_{(2,875)} = 12.85, p < .001, F_{(2,877)} =$

표 2. 1차 시점의 GHQ를 통제한 3차 시점의 집단별 GHQ의 평균(표준편차)

		GHQ_우울·불안		GHQ_부적응		GHQ_총점	
		M	(SD)	M	(SD)	M	(SD)
미취업-미취업	남자	8.72	(3.47)	7.37	(2.82)	16.09	(5.44)
	여자	9.24	(3.49)	7.97	(2.81)	17.13	(5.44)
	Total	8.98	(3.49)	7.67	(2.83)	16.61	(5.47)
미취업-취업	남자	7.33	(3.03)	6.50	(2.44)	13.94	(4.66)
	여자	8.37	(2.96)	7.13	(2.21)	15.40	(4.42)
	Total	7.85	(3.11)	6.82	(2.38)	14.67	(4.73)
취업-취업	남자	7.88	(3.11)	6.65	(2.44)	14.64	(4.76)
	여자	9.08	(3.79)	7.22	(2.72)	16.23	(5.65)
	Total	8.48	(3.45)	6.93	(2.54)	15.43	(5.18)

12.35, $p < .001$, $F_{(2,872)} = 16.83$,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미취업-미취업 집단($M = 8.98$)이 미취업-취업 집단($M = 7.85$) 및 취업-취업 집단($M = 8.48$)보다 1차 시점의 GHQ_우울·불안을 통제한 3차 시점의 GHQ_우울·불안이 더 높았다($F_{(1,746)} = 29.96$, $p < .001$, $F_{(1,746)} = 5.43$, $p < .05$). 미취업-취업 집단과 취업-취업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_{(1,746)} = 2.79$, n.s.).

그리고 미취업-미취업 집단($M = 7.67$)이 미취업-취업 집단($M = 6.82$) 및 취업-취업 집단($M = 6.93$)보다 1차 시점의 GHQ_부적응을 통제한 3차 시점의 GHQ_부적응이 더 높아서 적응적 측면에서 정신건강은 더 좋지 않았다($F_{(1,747)} = 26.66$, $p < .001$, $F_{(1,747)} = 12.53$, $p < .01$). 미취업-취업 집단과 취업-취업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_{(1,747)} = .05$, n.s.).

또한 미취업-미취업 집단($M = 16.61$)이 미취업-취업 집단($M = 14.67$) 및 취업-취업 집단($M = 15.43$)보다 1차 시점의 GHQ_총점을 통제한 3차 시점의 GHQ_총점이 더 높아서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낮았다($F_{(1,743)} = 38.52$, $p < .001$, $F_{(1,743)} = 10.25$, $p < .01$). 미취업-취업 집단과 취업-취업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_{(1,743)} = 1.16$, n.s.).

성별의 주효과도 모두 유의했다($F_{(1,875)} = 15.24$, $p < .001$, $F_{(1,877)} = 10.39$, $p < .01$, $F_{(1,872)} = 14.88$,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GHQ_우울·불안($M = 7.98$, $M = 8.89$), GHQ_부적응($M = 6.84$, $M = 7.44$), GHQ_총점($M = 14.89$, $M = 16.25$)이 더 높아서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라서 대졸자들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본 여러 연구들은 상당수 이루어졌는데(Brief, Konovsky, Goodwin, & Link, 1995; Feather, 1990; Fryer & Payne, 1986; Hannan, O'Riain, & Whelan, 1997; Hoare & Machin, 2004; Patterson, 1997; Schaufeli, 1997; Vansteenkiste, 2004;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그 결과를 보면, 청년 실업자들은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들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주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왔는데, 청년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춘다는 노출(인과)가설과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는 선택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정신건강 수준을 두 번 이상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서 취업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취업상태에 따라 구분한 집단이 1차 시점에서도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3차 시점의 정신건강이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취업상태에 따라 구분한 집단이 1차 시점에서도 정신건강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검토한 결과를 보면, GHQ_부적응에서는 취업상태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 및 성별에 따라 1차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GHQ_우울불안과 GHQ_총점에서는 모두 성별의 주효과와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GHQ_총점이 GHQ_우울불안과 GHQ_부적응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보면, 1차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주로 우울이나 불안 수준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이 집단과 성별에 따

라 달랐던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시점의 GHQ 우울불안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두 여성들은 집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남성들은 미취업·취업 집단과 취업·취업 집단에서 미취업·미취업 집단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취업·취업 집단은 졸업한 지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미취업·취업 집단은 졸업한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남성들의 경우에 취업의 시기와는 상관없이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에 비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본래 우울이나 불안으로 측정하는 정신건강 수준이 더 좋은 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래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이후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선택가설이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본래 정신건강, 특히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후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택가설이 지지되었다.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3차 시점의 정신건강이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본 공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 GHQ 총점에서 모두 미취업·미취업 집단이 미취업·취업 집단 및 취업·취업 집단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기 이전의 정신건강 수준의 효과를 통제해도 여전히 청년실업은 이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노출(인과)가설이 지지되었다. 세 가지 종속치에서 모두 성별의 주효과도 유의했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출가설은 세 가지 종속치에서 모두 지지되었고,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

이 지지되었다. 반면에 선택가설은 남성들의 경우에 그리고 종속치가 GHQ 우울·불안인 경우에 지지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해서 보면, 선행연구에서 선택가설이나 노출가설이 지지되거나 기각되는 결과가 비일관되었던 점은 분석 방식, 종속치 및 연구대상이 달랐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종속치를 우울이나 불안, GHQ 혹은 자존감과 같은 변인들을 사용할 때 먼저 기저선에서 각 변인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이 수준을 통제한 후 이후 시점에서 종속치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사용해야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수준을 우울 및 불안증상으로 측정할 때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지지되었다. 앞서 예를 든 Hammarstrom과 Janlert(1997)에서도 주종속치가 우울증상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따라서 종속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게 되면 선택가설이 지지되고 적응수준과 같은 기능문제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게 되면 노출가설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가설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GHQ를 측정할 때 우울 및 불안과 부적응 수준을 모두 합한 총점에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추론하면 연구 대상에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선택가설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서 취업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도 알아보았다. 취업·취업 집단부터 보면, 이 집단은 졸업한지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로서 초기

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2차 시점에서는 우울 및 불안 문제 그리고 부적응의 문제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3차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2차 시점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지는 점을 보였다. 이 집단을 졸업한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로 구성된 미취업-취업 집단과 비교해서 보면 변화의 추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취업-취업 집단이 비록 3차 시점에서 2차 시점보다 문제는 더 높아졌지만, 3차 시점의 정신건강은 미취업-취업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반면에 취업-취업 집단은 초기 취업에 성공했고, 미취업-취업 집단은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차 시점에서는 취업-취업 집단이 미취업-취업 집단보다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취업-취업 집단의 사람들은 최근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해진 사회상황에서 초기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일시적으로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당히 낮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취업에 성공한 시기, 우울/불안이나 부적응과 같은 종속치의 종류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달라지는 점이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문제부터 보면, 취업-취업 집단과 미취업-미취업 집단은 1차 시점과 비교해서 2차 시점에서 우울 및 불안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에 3차 시점에서야 취업에 성공한 미취업-취업 집단은 2차 시점에서 우울 및 불안 문제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이 결과는 1차 시점에서 미취업-취업 집단과 취업-취업 집단의 남성들은 미취업-미취업 집단의 남성들보다 본래 우울 및 불안 문제가 낮았으므로 성별까지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남녀모두 본래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더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에 초기취업에 실패하는 2차 시점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다가 실업이 장기화되는 3차 시점에서 우울 및 불안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취업-취업 집단에서 본래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낮았던 남성들은 초기취업에 실패하면서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다른 사람들 수준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취업에 성공하면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취업 집단에서 여성들은 본래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낮지 않았고 실업이 장기화되지도 않았으므로 우울 및 불안 문제는 시점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선행 연구(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1; Schaufeli & Van Yperen, 1992)에서 취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간의 실업 후에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 나타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서 보면, 장기간의 실업 후에 취업이 초래하는 긍정적 효과는 본래 정신건강, 특히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취업-취업 집단에서 본래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낮았던 남성들은 초기취업에 성공하면서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가 시점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집단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초기취업에 성공한 2차 시점에서 1차 시점보다 우울이나 불안문제가 높아지지 않아서 이 점에서는 남성들과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다만 이 여성들이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에서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다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으로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잠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높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취

업하기 더 어려운 최근의 상황에서 대졸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교육수준에 비해서 낮은 임금이나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험이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 문제를 높인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울 및 불안 수준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장기간의 실업이 우울이나 불안 문제를 높이고, 취업은 우울이나 불안 문제를 낮추기는 하지만 본래의 우울이나 불안 수준까지 낮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적응 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1차 시점보다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져서 적응적 측면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은 좋아졌다. 취업-취업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보다도 더 낮아졌다가 3차 시점에서 다시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에 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2차 시점에서 더 낮아졌다가 3차 시점에서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서 보면, 늦은 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미취업 상태인 2차 시점에서는 자신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가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이 평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성공한 2차 시점에서 자신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졌다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 3차 시점에서야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시점까지 실업 상태에 있는 미취업-미취업 집단의 경우에는 2차 시점에서 자신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가 이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미취업-취업 집단과는 달리 1차 시점의 수준으로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적응 수준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대졸자들의 경우에 대학졸업을 준비하면서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 수준을 평가한 GHQ-부적응의 항목들을 보면 주로 자신이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측정하고 있어서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기에 취업한 경험이 일정한 시간동안 자신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를 높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전국규모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연구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본 연구는 종단연구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해 20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별로 자료를 얻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실업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의 간격으로 총 1년 반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졸업 전 재학 시점, 졸업 시점, 졸업 후 취업이나 실업이 장기화된 시점에서 자료를 얻었다. 따라서 짧은 시간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종단연구에 비해서 실질적인 변화의 양상을 알아내는데 유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졸업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3차 시점까

지 지속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속성을 지녔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3차 시점에서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차 시점에서 측정한 여러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 편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취업 상태의 사람들보다 취업 상태의 사람들이 3차 시점까지 계속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서 본 연구가 취업자들이 실제 기저율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대학 졸업생들의 학과별 취업률은 59.3%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전체 893명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507명으로 56.8%로 두 자료에서 얻은 비율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취업자들이 실제 비율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변량분석 및 공변량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다룬 선행 연구들 중에는 성별이 종속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Creed, Muller, & Machin, 2001; Hoare & Machin, 2004), 유의한 경우도 있었다 (신현균, 장재윤, 2003; Prause & Dooley, 1997).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비율에 따라서 성별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취업 집단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포함되거나 미취업 집단에 남성이 더 포함되면 성별의 효과가 취업여부에 따라서 상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변인으로 삼아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성별의 주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부적응 수준에서는

시점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특히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성별에 따라 달리 지지되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와 같이 여성들이 실업의 가능성에 더 취약한 상황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여성들이 본래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장기간의 취업으로 정신건강이 나빠지며 취업경험이 오래 지속되어도 우울이나 불안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들을 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취업상태로 구분한 세 집단에 포함된 성별비율이 유의하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의 성별비율은 우리사회의 취업 혹은 실업의 청년층 남녀의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 혹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초래하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련한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구직 성공과 관련된 구직 행동 및 실업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실제로 청년의 실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였다. 이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1차 조사에 비해서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대상자들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3차 조사까지 추적되지 못한 사람들이 3차 조사까지 참여한 사람들과 본래 기저선에서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집단이 1차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주요 변인들에서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및 3차 시점별로 나누어서 취업여부를 알아보았다. 특히 2차와 3차 시점에서 취업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이 방법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 집단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각 시점에서 취업상태인지 혹은 실업상태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볼 때, 각 조사가 이루어진 6개월이라는 시간 간격에서는 취업과 실업이 반복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취업이 되는 시기, 취업과 실업이 반복하여 자주 나타나는 빈도, 한 직장에 머무르는 간격 등에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러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취업력은 정신건강 수준과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여부를 알아본 방식으로는 이러한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취업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얻어서 이와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기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경우에 오히려 이후에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높아지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대안설명을 제안하였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로는 이러한 대안설명을 검증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잠정적인 예측일 뿐이므로 장래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사회의 여성들의 고용형태나 직무만족 혹은 개인의 자질과 직무수준의 부합도 등을 측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정신건강이나 우울 및 불안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GHQ 점수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이 초래하는 문제를 알아본 여러 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종속치로 GHQ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나 지역간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용이하도록 동일한 GHQ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지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자존감(Prause & Dooley, 1997), 신경증적 우울의 수준(Hammarstrom & Janlert, 1997), 알콜문제(Abma, 1991), 약물남용(Atkinson, Montoya, Whitsett, Bell, & Nagy, 2003; Hammarstrom, Janlert, & Winefield, 2002; Kandel, 1980) 등이 사용되었는데,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속치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따라

서 장래연구를 통해 GHQ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 이외에 다른 측정치에서 청년실업이 미치는 효과를 국내표집을 대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 장재윤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이훈구, 김인경, 박운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87-101.
- Abma, J. (1991). *Alcohol use among young adults in 1988: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unpublished report,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Allan, E. A., & Steffensmeier, D. J. (1989). Youth, underemployment, and property crime: Differential effects of job availability and job quality on juvenile and young adult arres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4, 107-123.
- Atkinson, J. S., Montoya, I. D., Whitsett, D. D., Bell, D. C., & Nagy, C. W.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distress, employment, and drug use over time in a sample of female welfare recipi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223-234.
- Bachman, J. G., O'Malley, P. M., & Johnston, J. (1978). *Youth in transition, Vol 4, Adolescence to adulthood-change and stability in the lives of young men*.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anks, M. H. & Jackson, P. R. (1982). Unemployment and risk of minor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people. *Psychol Medicine*, 12, 789-798.
- Bolton, W., & Oatley K.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unemployed men. *Psychological Medicine*, 17, 453-460.
- Brenner, M. H. (1984). *Estimating the effects of economic change on national health and social well-being*.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rief, A. P., Konovsky, M. A., Goodwin, R., George, J. M., & Link, K. (1995). Inferring the meaning of work from the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693-711.
- Cobb, S., & Kasl, S. (1977). *Termination: The consequences of job loss*. Cincinnati: NIOSH.
- Creed, P. A., & Evans, B. M. (2002). Personality, well-being and deprivation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45-1054.
- Creed, P. A., & Watson, T. (2003). Age, gende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pact of losing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in unemployed peop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 95-103.
- Creed, P. A., Muller, J., & Machin, M. A. (2001).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status, neuroticism, financial strain and categories of experience in predicting mental health in the unemploy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35-447.

- Creed, P. A., & Reynolds, J. (2001). Economic deprivation, experiential deprivation and social loneliness in unemployed and employed youth.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167-178.
- Dew, M. A., Bromet, E. J., & Penkower, L. (1992). Mental health effects of job loss in women. *Psychological Medicine*, 22, 751-764.
- Prause, J., & Dooley, D. (1997). School-leavers' self-esteem and unemployment: Turning point or a station on a trajectory? *Journal of Adolescence*, 20, 243-260.
- Ettner, A. (1995). Measuring the human cost of a week economy: Does unemployment lead to alcohol abuse? *Social Science Medicine*, 44, 251-260.
- Feather, N. T. (199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New York: Springer Verlag.
- Feather, N. T. & O'Brien, G. E. (198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n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121-144.
- Fryer, D. & Payne, R. (1986). Being unemployed: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C. Cooper & I.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London: Wiley.
- Goldberg, D. P.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urney, R. M. (1980).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205-213.
- Hammarstrom, A., & Janlert, U. (1997).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 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20, 293-305.
- Hammarstrom, A., Janlert, U., & Winefield, A. H.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u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 Hammer, T. (1993).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mong young peop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6, 407-420.
- Hannan, D. F., O'Riain, S., & Whelan, C. T. (1997). Youth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Republic of Ireland. *Journal of Adolescence*, 20, 307-320.
- Hoare, N., & Machin, A. (2004). *Self-esteem, affectivity, and deprivation: Predictors of well-being in the unemployed*. This paper was first presented at the 19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 April, 2004 in Chicago.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del, D. B. (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235-285.
- Layton, C. (1986). Employment, unemployment, and response to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Reports*, 58, 807-810.
- Murphy, G. C., &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83-99.

- Patterson, L. J. (1997). Long-term unemployment of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Patton, W. A., & Noller, P. (1984). Unemployment and youth: A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6, 399-413.
- Schaufeli, W. B., & VanYperen, N. W. (1992).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mong professional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5, 291-305.
- Schaufeli, W. B. (1997).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Dutch findings. *Journal of Adolescence*, 20, 281-292.
- Vansteenkiste, M., Lens, W., Dewitte, S., De Witte, H., & Deci, E. L. (2004). The 'why' and 'why not' of job search behaviour: Their relation to searching, unemployment experience, and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345-363.
- Warr, P.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Clarendon Press.
- Winefield, A. H., Tiggemann, M., & Winefield, H. R. (1991).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in young men and women: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dat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2, 473-486.
- Winefield, A. H. (1997).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dolescence*, 20, 237-241.
-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Goldney, R. D. (1993). *Growing up with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ts psychological impact*. London: Routledge.

1 차원고접수 : 2004. 10. 11.
수정원고접수 : 2004. 12. 3.
최종게재결정 : 2004. 12. 13.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Chang, Jae-Yoon	Jang, EunYoung	Kim, Bum-Sung	Roh, Younhee	Lee, Jeeyoung	Han, Jihyun
Sungshin	Sungshin	Sunmoon	Seoul	Sungsh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men's University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Women's University

Two hypotheses have been suggest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ne is 'the exposure hypothesis' which insists that youth unemployment causes a decline in mental health and the other is 'the selection hypothesis' which insists that people with low mental health are less likely to be employed. To test these competing hypotheses, we designed longitudinal study composed by three surveys administered to adolescents at six-month intervals. At all three poin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level of mental health. First (T1) survey was performed by the questionnaire and the data of 2,747 senior students from twenty universities in Korea was collected. Second (T2) and third (T3) surveys were performed by use of the e-mail on internet. The data of 1,301 adolescents was collected at T2, and the data of 1,384 was collected at T3. The data of 893 adolescents who were identified whether employed or not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We divided this data into three groups: First, 'unemployment-unemployment group(G1)' was composed by the adolescents who were unemployed at T2 and T3. Second, 'unemployment-employment group(G2)' was composed by the adolescents who were unemployed at T2 and employed at T3. Third, 'employment-employment group(G3)' was composed by the adolescents who were employed at T2 and T3. GHQ-depression anxiety at T1 was affected by a male-group, but not in a female-group. Thus, the selection hypothesis was partially suppor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G1, total score of GHQ at T3 was higher than that measured at T1 and T2. Second. concerning the G2, total score of GHQ at T3 was lower than the score at T1. Finally, regarding the G3, total score of GHQ at T2 and T3 were lower than the score at T1. In addition, we also tested the effects of group on GHQ at T3 with total GHQ score at T1 as a covariate and found that G1's GHQ score was higher than that of G2 and G3. These results support the exposure hypothesi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youth unemployment, mental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longitudinal study, employment, GHQ, exposure hypothesis, selection hypothesis, causation hypothesis.